

우리 '史眼'에 의한 최초의 中國通史

서울대 東洋史學연구실 엮음 「講座 中國史」 전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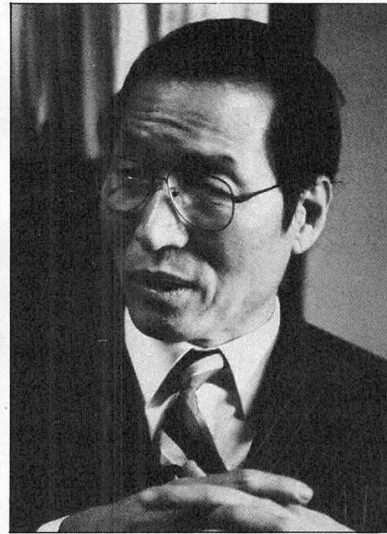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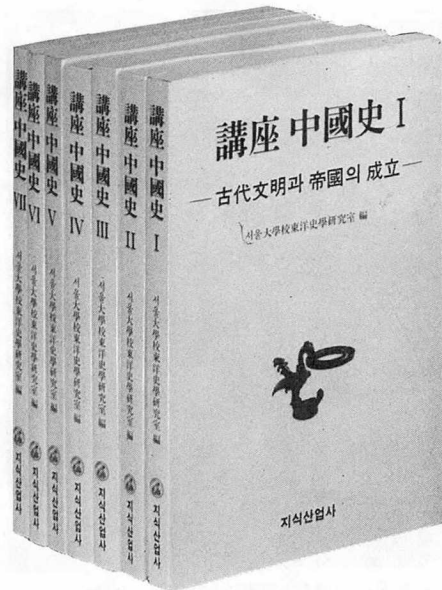
우리 학계의 동양사 연구성과를 한눈에 가늠케 하는 국내 최대분량의 중국通史가 나와 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가 학과설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년간의 기획·집필기간을 거쳐 이번에 완간한 「강좌 중국사」(전7권, 지식산업사)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현직교수들과 同科 석박사과정에서 이수한 동문 31명이 필자로 참여한 이 책은 중국사인식에 대한 우리학계의 '홀로서기'라는 점에서 매우 값진 기획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류문명의 한 발상지로서 고대국가 건설의 모형을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諸國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온 중국사에 대한 세계적인 학문업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Cambridge History of china」(전15권)이다. 구미학자들을 중심으로 권위있는 중국사 관련학자들이 총동원된 이 책은 수준높은 중국통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의 「岩波講座 世界歴史」에는 10권 분량의 중국편에서 일본학계의 중국사연구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따라서 「강좌 중국사」의 간행은 이와 같은 세계적인 중국사 연구에 버금가는 학문적 쾌거로서 한국인의 '史眼'에 의해 씌어진 최초의 중국사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주제별로 압축한 '논문식 통사'

중국문명의 형성기로부터 1940년대의 항일전쟁시기에 이르는 大河와 같은 중국역사를 다루고 있는 「강좌 중국사」의 특이함은 '논문식 통사'라는 점이다. 왕조사 중심의 시대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역사를 36개의 주제로 압축,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독립된 논문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엮은 통사다.

이러한 체계는 金容德·金浩東·閔斗基·朴漢濟·吳金成·李成珪씨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위원장 민두기교수)가 세운 서울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각장은 개설사적인 사실을 서술하되 중국을 비롯한 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수용한다 ▲국내 연구성과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학설과 집필자 나름의 독자적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한다 ▲교양일반을 위한 목적과 연구텍스트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등의 원칙에 입각, 중국사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은 있으되 좀더 깊이, 그리고 넓게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편집위원장 閔斗基교수

민두기교수는 "편집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면에서 약간의 조정과 다른 주제와의 서술중복을 조정하는 역할만 했다"고 밝히면서, 국내외의 기존 연구성과를 되도록 반영하는 연구사적 시각을 부각시켜 "중국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해 우리역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이루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좌 중국사」에 수록된 논문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된 국내외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은 물론, 중국의 개방화 물결을 타고 제기되고 있는 역사인식론의 변화까지 수용하고 있다. 특히 고대사부분의 논문은 중국본토에서 활발히 전개된 유물발굴 작업의 최신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의 가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몽고제국 및 유목민족 관련부문과 明·清 시대에 대한 분석은 현단계 동양사학 연구의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생적인 근대화에 뒤늦게 성공한 일본과는 달리 半식민지 상태의 질곡에 빠져 '독립'과 '근대화'라는 두개의 역사적 과제를 걸머졌던 중국근대사부분에 대한 연구는 가치 독보적이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국민혁명 전개과정에 해당하는 제7권 「신질서의 모색」은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만을 토대로 집필되어 우리 동양사학계의 연구지층이 얼마나 두터운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두기교수는 이에 대해 "80년대 후반 우리 동양사학계가 거둔 연구성과들이 외국학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연구논문이 외국학술지에 활발히 번

역·소개되는 현상과 더불어 우리 학계의 중국사 연구수준이 세계적인 반증하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해방후 한국동양사학의 '중간평가'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역사를 우리의 시각에서 서술한 연구서가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강좌 중국사」는 해방직후부터 축적된 동양사학계의 학문적 역량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고 있다. 더욱이 1969년 서울대 사학과가 국사학과·동양사학과·서양사학과로 分科된 이래 100여명의 전공학자를 배출한 同科의 동문들이 집필, 사실상 국내 연구역량을 대표하고 있는 「강좌 중국사」는 우리 동양사학계가 학문적 '자립'을 선언할 정도로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그러나 연구자의 수적 제한 등을 이유로 「강좌 중국사」에 대한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하나는 통사로 엮어졌음에도 불구하고 漢代史와 元代史 일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1945~1949년까지의 내전시기 연구되지 않아 각 권에 붙인 제목이 그 말 그대로의 내용을 갖추지 못한 편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왕조사 중심의 역사기술은 극복하고 있지만, 정치사 위주로 치우쳐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그리고 민중생활사 등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심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고병익교수(한림대·동양사)는 이 책이

재래적인 왕조중심이나 삼분법적 시대구분을 따르지 않고 시대성격을 표출시켜 편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제와 직접 관련이 적은 문제들을 너무 간략하게 다룬 것이 한계"라고 하면서, "집필자들이 기왕의 연구논문을 착실히 수집하여 篇末에 자세히 제시하였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취사선택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좌 중국사」의 권별 총목차 및 필자.

①고대문명과 제국의 성립 ▲중국문명의 기원과 형식(李成珪) ▲춘추전국시대의 국가와 사회(李成九) ▲諸子の學과 사상의 이해(이성규) ▲皇帝지배체제의 성립과 전개(鄭夏賢)

②문벌사회와 胡·漢의 세계 ▲魏晉南朝 귀족제의 전개와 그 성격(朴漢濟) ▲胡漢체제의 전개와 그 구조(박한제) ▲균전체제와 균전체제(金裕哲) ▲唐 전기의 지배층(柳元迪) ▲고대유목국가의 구조(金浩東)

③시대부사회와 몽고제국 ▲唐宋변혁기論(辛聖坤) ▲宋代 시대부론(河元洙) ▲송대의 사회와 경제(李範鶴) ▲송대 주자학의 성립과 발전(이범학) ▲몽고제국의 형성과 전개(김호동)

④帝國질서의 완성 ▲明朝의 통치체제와 정치(崔晶妍) ▲양명학의 성립과 전개(曹永祿) ▲明末·清初의 사회변화(吳金成) ▲清朝 정권의 성립과 발전(金斗鉉) ▲明·清대의 농민반란(崔甲洵) ▲明·清시대의 국가권력과 紳士(오금성) ▲清대의 사상(曹秉漢)

⑤중화제국의 동요 ▲제1, 2차 中英전쟁(表教烈) ▲태평천국과 捻軍(金誠贊) ▲洋務運動의 성격(朴赫淳) ▲중화제국질서의 동요(崔熙在)

⑥개혁과 혁명 ▲變法운동과 입헌운동(尹惠英) ▲'教案'과 의화단(金培喆) ▲民國혁명론(閔斗基) ▲辛亥혁명의 전개(김형중) ▲5·4 운동(姜明喜)

⑦신질서의 모색 ▲군벌통치와 聯省自治(金世昊) ▲제1차 국공합작과 북벌(羅弦洙) ▲南京국민정부의 성립과 그 성격(裴京漢) ▲제2차 국공합작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白永瑞) ▲항일전쟁(李昇輝) ▲東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근대화(金容德)

지식산업사 / A5신 / 각250면내외 / 각 5000원 내외

—이권우 기자